



PACT
No Plastics
in Nature

A WWF INITIATIVE FOR
A CIRCULAR ECONOMY AND
NO PLASTICS IN NATURE BY 2030



imPACT REPORT

PACT(Plastic ACTION)
성과보고서 2024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 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600만 명의 후원자와 3,000만 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인식 개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발행인: 박민혜
작성자: 전수현, 전수원
감수자: 권연주, 주용희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처: WWF(세계자연기금)
문의: plastic@wwfkorea.or.kr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Philipp Kanstinger / WWF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Text 2024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보고서는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산림관리협의회)로부터 인증 받은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 WWF / Juozas Cernius

목차

서문	WWF-Korea 사무총장 인사말	2
제1장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PACT	
	PACT(Plastic ACTion) 소개	6
	PACT 마일스톤	8
	기업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성과	12
	imPACT funds 활동	16
	플라스틱 오염의 불평등 보고서 소개	22
제2장	나아갈 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28
	맺음말	3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WWF-Korea
사무총장
박민혜

WWF 한국본부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WWF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회복, 생태계 보전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중 캠페인에서부터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요구는 강해지고, 기업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서 자연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WWF의 목표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막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WWF는 2021년 PACT(Plastic ACTION)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PACT에 가입한 13개 기업이 2023년 한 해 동안 감축한 플라스틱 양은 약 18,509톤입

니다. 이는 전년 감축량 대비 55% 늘어난 결과입니다. 빠른 전환이 어려운 비즈니스 부문에서 신재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성과입니다.

올해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INC-5)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국제 기준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WWF는 정부와 기업, 시민과 협력하여 다자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변화의 여정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응원하고,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WWF-Korea 사무총장



© Getty Images / AzmanJaka



제1장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PACT(Plastic ACTION)

PACT(Plastic ACTion) 소개

PACT는 WWF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기업 다자간의 선언이다.

1. PACT의 비전과 목표



PACT(Plastic ACTion)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WWF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 플랫폼이다. PACT는 기업들의 제품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PACT는 2019년도에 WWF 싱가포르 본부에서 출범했으며, 에비앙, 하얏트, 힐튼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다. 이들은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에 이어 2021년 한국에서도 PACT 선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시작했다.

2. PACT의 목표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1) 범분야별 협력 기회를 찾고, 2) 개별 기업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분야별 협력 기회

첫째,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분야에 제한 없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식품 및 음료, 화장품 및 생활용품, 호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PACT 연간 성과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감축 사례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목표 설정

둘째, PACT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PACT에 가입한 기업들은 WWF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전략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임직원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 절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식 채널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3. PACT 가입 기업 소개

한국의 PACT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국내 6개 기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산업별 특성과 기업별 상황에 맞춰 각각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LG생활건강, SK매직, 매일유업, 씨에이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아임에코, 엑스와이지, 올가니카, 우아한형제들, 우리카드,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코오롱 LSI·MOD, 풀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 기업

WALKERHILL
HOTELS & RESORTS

Maeil

i'm eco

CHAHONG

AMORE PACIFIC

ORGANICA

우리카드

우아한
형제들

KOLON LSI MOD

LG 생활건강

SK magic

XYZ

Pulmuone

PACT 마일스톤

WWF-Korea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발자국을 감축하고 완전한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2021년 4월 PACT(Plastic ACTION)를 출범했다. 그동안의 한국의 PACT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01 2020년 12월 플라스틱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발간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WWF는 이 보고서에서 국내외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 현황을 요약하고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와 현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여 국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02 2021년 4월 PACT 선언식

온라인 선언식을 통해 WWF-Korea에서 공식적으로 PACT가 출범하였다. PACT 가입 기업 및 WWF-Korea의 대표자들이 함께 하여 공동의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03 2021년 6월 제1회 라운드테이블

PACT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관련 산업별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자의 목표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04 2021년 12월 제2회 라운드테이블

신규 PACT 가입 기업 및 관심 기업들을 초청하여 제2회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제2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들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신소재 연구동향이 소개되었다.



05 2022년 2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종,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문 보고서 발간

WWF의 주관으로 알프레드 베게너 해양극지연구소(AWI) 연구진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의 해양,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즉각적이고 통일된 국제적 행동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06 2022년 7월 성과보고서 발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PACT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PACT에 가입한 9개 기업의 감축 노력으로 기업들의 감축 노력으로 약 5,120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되었다.



07 2023년 6월 제3회 라운드테이블

제3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효율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달성과 자원순환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WWF-US, 서울대학교 등의 연사 발표에 이어 각 기업의 감축 현황을 공유하며 PACT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08

2022년 8월 순환경제 컨퍼런스

순환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주체인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실제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필요한 대의 환경 분석 및 핵심 분야 사례를 논의하였다. 또한 순환경제가 지속가능한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 산업군의 동향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각 계층의 인식제고를 위한 깊이있는 정보 공유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09

2023년 7월 성과보고서 발간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PACT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PACT에 가입한 11개 기업들의 감축 노력으로 약 11,915톤의 플라스틱이 절감되었다.



10

2024년 2월 제4회 라운드테이블

제4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처리 비용이 고소득 국가보다 중저소득 국가에서 약 10배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EMF)은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11

2024년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

WWF는 공정하고 강력한 협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중 홍보 캠페인과 세계 각국 정부를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 naturepl.com / Paul Williams / WWF

PACT 기업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성과

1. 요약 (약 18,509톤)



2. PACT 기업의 개별 감축 노력

식품 및 음료(F&B)

매일유업

매일유업은 3R(Reduce, Recycle, Replace)을 실천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총 229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 특히, 발효 유 용기를 PP에서 종이로 전환해 연간 80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다양한 제품에 경량화를 진행하며 무라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Recycle과 관련하여, 유음료 업계 최초로 10%의 r-PET를 사용했으며, 제품 포장을 넘어 물류용 트레이 수축필름에도 재생소재를 적용하여 자원순환화에 기여했다. 또한 컵 음료의 빨대와 뚜껑을 제거한 분리 리드 제품을 개발했고, 2024년 순차적으로 적용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은 경량화, 소재 대체, 재생소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임에코

산수음료(주) 브랜드 아임에코는 Bottle-to-Bottle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여 Closing the Loop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호텔, 페스티벌, 박람회 등에서 버려진 포장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감축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도입한 생수 시리즈 중 10%, 20%, 30%, 50%,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개발 및 출시했다. 더 나아가, 현대카드와 워커히과 협업하여 아워백과 우산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으며,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파트너 오비맥주 카스와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려진 아이스컵을 다시 아이스컵으로 재활용하는 'Cup-to-Cu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PET를 재활용한 현수막 원단 제공 등 업사이클링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 활동뿐만 아니라 자체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무한 재생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엑스와이지

엑스와이지는 바리스타 로봇에 다회용 컵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기업으로서 자원 선순환 활동을 실천해왔다. 직영 식음료 매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감축하였으며,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량도 약 20% 늘려 선순환을 도모했다. 직영 매장뿐 아니라 시청과 리조트 시설 등 고객사에 도입된 로봇 카페에도 다회용 컵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엑스와이지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대기업 등 대규모 시설로 타깃 시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로봇 기술을 통한 다회용 컵 사용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올가니카

올가니카는 Bio MEG 30%를 사용하며 PET 사용량을 감축했다. Bio MEG는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로 만들어진 소재로, 일반적인 석유 기반의 MEG(모노에틸렌 글리콜) 대신 사용되어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보냉백 66%를 스티로폼 박스에서 종이 에코쿨러로 전환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였다. 올가니카는 앞으로가 용기 및 라벨의 용량, 중량, 규격 변경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신규 포장 소재를 검토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풀무원

풀무원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전사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 단위별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3년에는 셀러드 및 도시락 용기와 뚜껑에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 PET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대체, 용기 성형재질 변경 및 경량화를 통해 총 186톤을 감축하였다. 또한, 2차 포장재로 사용되던 스티로폼 박스를 종이박스로 전환하여 총 162톤을 감축하였다. 2024년에는 음료 용기에 r-PET 재생원료 함유량을 높이고 용기 경량화 제품을 늘리며,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전환하고 무라벨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퍼스널케어(Personal care)

LG 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R 전략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으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는 등의 저감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염모제와 선물세트 트레이에 종이 트레이와 저비중 트레이를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고, '더후' 브랜드 제품에는 캡 기밀성 향상 기술을 도입해 플라스틱 누액 방지 패키지를 제거했다. 또한, 칫솔 경량화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을 20% 절감하고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해 2023년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1,459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

씨에이치코스메틱 (차홍)

씨에이치코스메틱은 신규 제품 품목에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원터치캡을 적용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9,000개의 디스펜서를 도입했다. 추가로 플라스틱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PET 제품에는 수분리 라벨을 적용하고, PE, PP 단일 소재 제품에는 동일 재질 라벨을 적용하여 재활용성을 강화했다. 2025년도 이후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도입과 비금속 디스펜서 적용 펌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r-PET 적용 확대 및 포장재 경량화를 통해 2023년에 신규 석유 유래 플라스틱 1,900톤을 감축했다. 또한, 포장재에 대한 4R(Recycle, Reuse, Reduce, Replace)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성을 향상시키며, 용기 재이용 및 회수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차원에서 관련 목표와 세부 KPI를 신설하고,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공병 수거 캠페인을 통해 2,592톤의 공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표로 삼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 Shutterstock / Elizaveta Galitckaia / WWF

호텔(Hospitality)

위커했 호텔앤리조트

위커했 호텔앤리조트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식음료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100% 생분해성 재질로 교체하였으며, 포장 용품 중 박스테이프와 완충재를 종이로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한, 객실 내에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칫솔과 빗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제품으로 100% 교체하였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어메니티를 대용량 제품으로 교체해온 위커했은 2023년 4월 그랜드 위커했 서울 전 객실의 어메니티를 대용량 비건 제품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SUPLEX 김치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종이 포장재로 교체하고 다른 상품에도 추가 전환 확대를 계획하는 등 진정성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오롱LSI·MOD

코오롱LSI·MOD는 객실에 커피박으로 만든 컵을 비치하고, 식음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 발포컵과 옥수수 전분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야외 바비큐장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전환했으며, 테이크아웃 용기도 점차 종이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서 일회용 칫솔·치약 제공을 중단하고, 다회용 삼푸, 바디워시 등을 비치하며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Finance)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카드 생산과 폐기 시 탄소 및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PVC 대신, 재생 가능하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탈 PVC 소재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BIG(Bio Insure Green) 필름을 주력 카드 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대비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비율이 0.07% 상승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소재의 카드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전제품(Home appliances)

SK매직

SK매직은 2023년에 제품의 소형화, 비효율 모델 단종 및 포장 개선 활동을 통해 2022년 대비 총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앞으로 R&D 측면에서 제품 구조와 성능을 개선하여 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 소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 사용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품과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 불량과 손실률을 낮춤으로써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을 지속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나아가,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배달 서비스(Delivery service)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하고, 이어 '기본찬 안 받기' 기능을 추가 적용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22년부터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배달의민족 앱에서 '다회용 배달용기' 선택 기능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이를 경기도와 인천시 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운영 지역을 넓혔다. 또한, 2023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약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사장님 대상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클래스'를 통해 다회용기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배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B마트에서 종이 완충재를 사용해 에어캡 사용을 최소화하고, 배민문방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적용하는 등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naturepl.com / Tui De Roy / WWF

imPACT funds 활동

양양 침적쓰레기 수거 성과



매년 1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오염은 날이 깊어져 간다. 특히 자연에 방치되거나 바닷속에서 유실된 폐어구들로 인한 오염과 해양 생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WF-Korea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다.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맺고 imPACT 플라스틱 기금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왔다. 2021년 연평도 어장에서 105톤, 2022년 제주 권역에서 41톤의 폐어구를 수거했으며, 2023년에는 강원 양양군 수산항 인근 해역에서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를 진행하여 해양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했다.

양양에서는 인양틀과 크레인 탑재 선박을 이용하여 폐어구, 로프, 통발 등 약 3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분리 및 세척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 처리되며, 일부는 소각 또는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과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회복과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노력했다.

WWF는 앞으로도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INC-5를 앞두고 2024년 사업지로 부산 해안을 선정하여 침적쓰레기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 주민자율관리사업 성과

WWF는 2023년도에 국립공원공단과 통영 해양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여 1만 8,390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WWF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2월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도서 지역의 많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도서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바람과 해류로 인한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떠밀려오지만, 접근이 어려워 지속적인 수거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넓은 해양쓰레기 분포로 인해 기존 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WWF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통영 연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스티로폼 부표 등을 포함한 총 1만 8,390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어촌계 등 주민 27명이 함께하여 연대도 해변 6개소에서 4개월간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WWF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근로 소득을 높이고 해양 보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WWF는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포럼 발표



2023년 7월 20일, WWF는 컨트룩유니온 코리아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패키징 포럼’에 참석해 해외의 지속가능한 포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포장재의 생산, 규제, 관리, 인증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지속가능 패키징 트렌드, ESG 최신 동향,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WWF는 싱가포르 본부의 ‘재사용 가능한 이커머스 포장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1만 5,000건의 주문 건 중 소비자 3분의 1이 재사용 포장재를 선택했고, 인센티브와 사전 홍보가 참여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활용 포장재보다 재사용 포장재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FSC 인증 제도과 화장품 산

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종이 포장재 활용 방안에 대한 각자의 사례를 공유했다. 식품 산업과 전자제품 산업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연구 개발 현황과 지속가능한 포장재 전환 사례를 소개하였다. WW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포장재 연구 현황을 모색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4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4년 2월 22일, WWF는 ‘제4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PACT 기업들을 포함한 약 20여 개 기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WWF는 PACT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공유하며, PACT에 가입한 13개 기업이 지난해 1만 1,91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WWF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오염 불평등 보고서’를 소개하며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보다 약 10배 이상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WWF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INC-5와 관련된 WWF의 캠페인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EMF)는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MF는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면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EMF의 비전과 업 스트림 혁신의 개념을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사례와 재사용 포장 연구에서 느낀 3가지 장애물인 재사용 확대의 어려움, 연질 플라스틱 문제, 수거 및 순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업계, 정책 입안자, 금융 부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세션에서는 삼양사의 폐어망 리사이클 ‘Polyamide 6’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삼양사는 소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폐어망 재활용 소재의 생산 및 품질 관리 과정, 인증 현황을 소개하였고, 고객사에 제공하는 품질 관리 절차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임에코가 추진 중인 사업과 여러 기업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아임에코는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활용, 저탄소, 생분해성 소재로 전환하는 목표와 회수율을 30%까지 올릴 계획을 설명했다. 아임에코는 카드사, 호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이력을 관리하고 재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킹으로 마무리되었으며, WW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WWF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WWF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 보전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WWF는 반기문 SDGs 마을에서 홍보 텐트를 운영하며, 한국,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본부에서 방문한 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철새, 야생동물, 플라스틱 등을 주제로 세계 청소년들에게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가 생물다양성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알아보고, 철새의 이동 경로와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WWF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해 스카우트 대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구를 위한 챔피언 (Champions for Nature)'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구하다 페스티벌' 참여



2023년 10월 23일, WWF는 환경부, 교보생명,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최한 광화문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연보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주제별로 구성된 5개 구역에서 자연 보전의 중요성, 자연 보전 실천 방법,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등을 배우고 체험했다. WWF 부스에서는 플라스틱의 탄생부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대한 교육과 플라스틱 오염이 생물다양성과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는 다짐을 붙임 쪽지로 붙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소년, 시민, 관광

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부스를 방문하였으며 일회용 제품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을 공유했다. WWF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mPACT funds에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스코, 씨에이치코스메틱(차홍), 필더필, 현대자동차, GS건설

플라스틱 오염의 불평등 보고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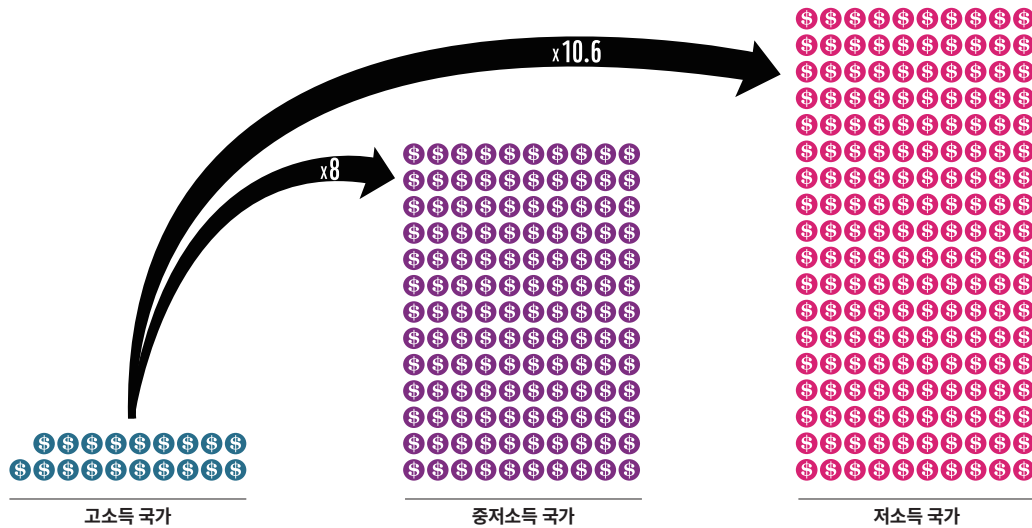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2023년 11월에 WWF는 Dalberg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오염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WWF 연구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에서 플라스틱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고소득 국가보다 8배, 저소득 국가는 10배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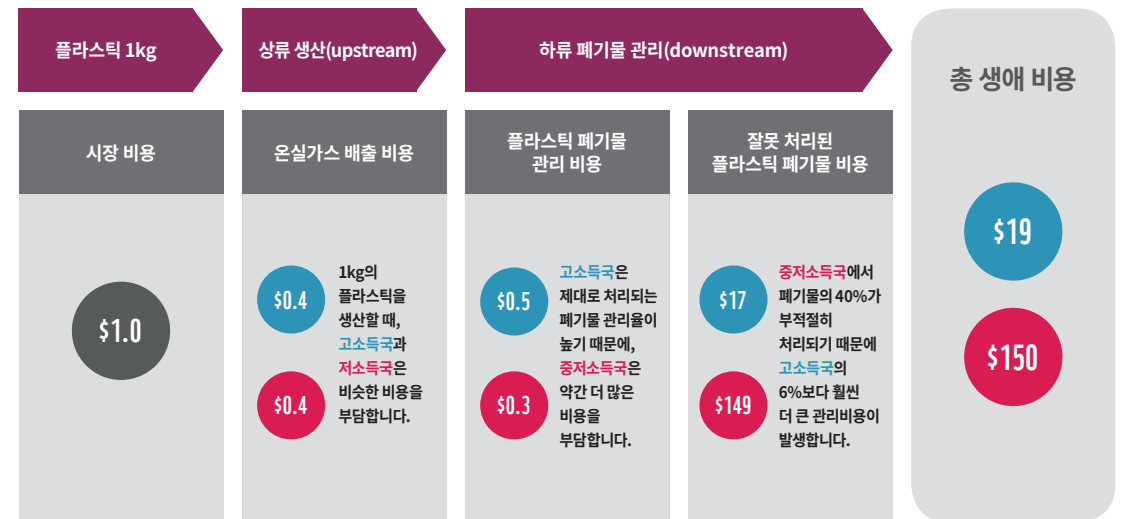
국가 소득 수준별 1kg 플라스틱의 불룩의 총 생애 비용 비교



2019년 한 해에만 약 2백만 대의 쓰레기 트럭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로 유출되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제가 없으면, 2040년까지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약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증가가 통제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더 심각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라스틱 생산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중저소득 국가들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수거 및 처리 시설 부재로 인해 높은 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연간 약 260억 달러의 투자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며, 특히 군소 도서개발도상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국가 소득 수준별 플라스틱 1kg에 대한 생애 비용 비교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사망자의 93%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는 이러한 국가들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인간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 계층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공기 오염, 홍수 위험 증가, 전염병 확산, 생계 위협 및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 **라오스:** 라오스에서는 폐기물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한 공기 오염을 초래하며, 주민들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여 연간 4,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 **인도:**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수 시스템을 막아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 뭄바이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수 시스템을 막아 2005년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의 코세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2017년 쓰레기 산사태가 발생하여 72명이 사망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5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 협약이 논의될 예정이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협약에는 재활용 능력 향상, 유해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및 단계적 폐지, 재사용 요구 사항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불평등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

● **국제적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글로벌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INC-5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이들 국가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포괄적 접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조치를 포함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WWF-Korea는 PACT를 추진하여 기업과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INC-5에서 논의될 국제 협약이 실현된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Magnus Lundgren / Wild Wonders of China / WWF



제2장 나아갈 길

© Tenzin Rabgye / WWF-Bhutan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전 세계 85%,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원해... 강력한 국제 협약 촉구

2022년 3월, 175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사용 및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정부는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을 즉시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강력한 글로벌 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협약 초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방해 전술로 인해 INC 회의의 협상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WWF는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 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 프리 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거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 4,000여 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 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 보여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강한 동의를 표했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했고,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물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함에 따라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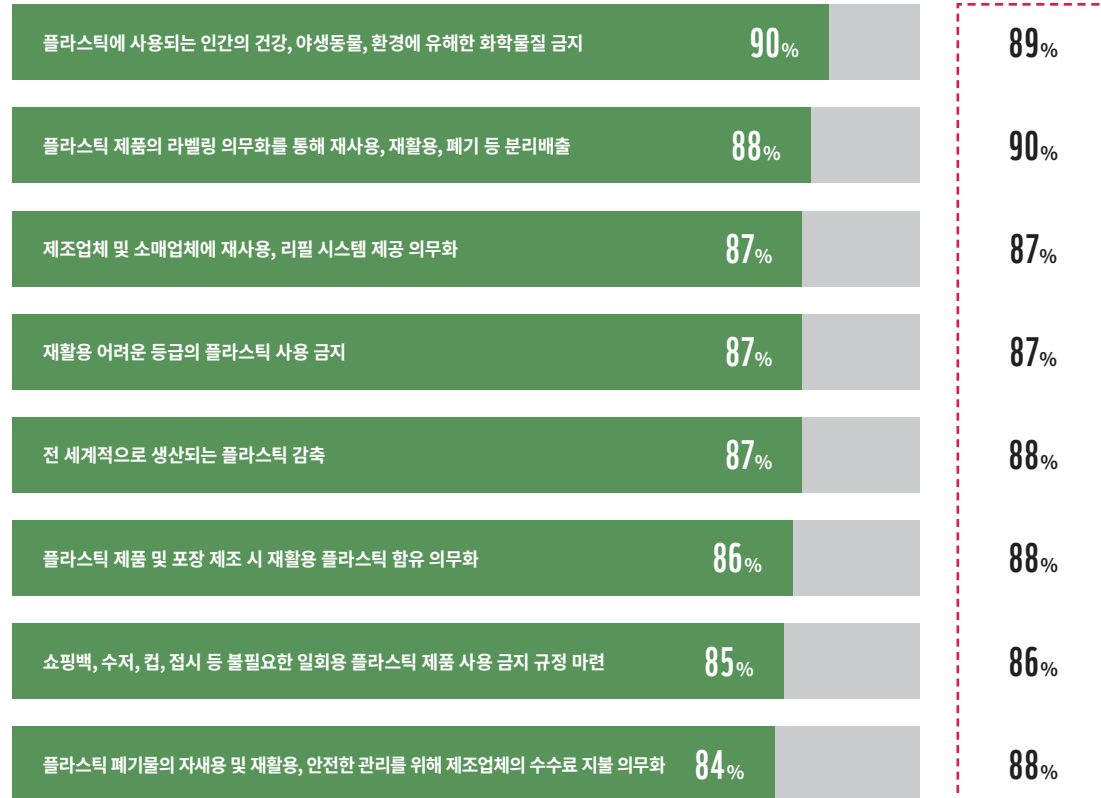
하지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과 비교해 6% 차이가 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에서 이 보고서가 추구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강력한 글로벌 규칙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금지하며, 재사용과 순환성을 촉진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 세계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력한 국제 규정을 지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대부분의 세계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맺음말

WWF는 국내외 정책과 산업별 기술 동향을 분석하며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 왔다. PACT는 WWF의 No Plastics in Nature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첫째 5,120톤에서 올해 세 번째 성과를 취합하며 1만 8,509톤의 신재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업들의 자원순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오염의 불평등 보고서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중저소득 국가에 불균형한 부담을 담고 있

며, Rising Tides 보고서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강력한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약은 국내외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WWF는 정부, 기업, 시민과 협력하여 협약이 실현되고 산업계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WWF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PACT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협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대중과 함께 과대 소비를 줄이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PACT 가입 안내 plastic@wwfkorea.or.kr



© Bastien Preuss / WWF France



© Nick Garbutt / naturepl.com / WWF



WWF는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4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